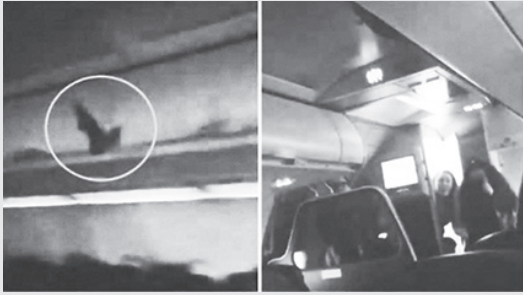


## 비행 중 여객기에 박쥐 출현 승객들 '혼비백산'



이륙한지 한참 지난 여객기 안에서 갑자기 박쥐 한 마리가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다.

6일 CNN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서 뉴저지주 뉴어크로 향하던 스피릿항공 여객기 안에서 박쥐 한 마리가 나타나 기내 여객 저기를 날아다녔다.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남성 승객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기내에서 박쥐가 날아다니는 시간을 출발한지 30분쯤 지났을 때부터였다고 말했다. 문제의 박쥐가 어떤 경로로 기내로 들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박쥐가 나타났을 때 대다수 승객은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생명체가 박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물론 객실 승무원들 역시 공포에 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소동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한 승객이 책과 컵을 이용해 문제의 박쥐를 사로 잡았고, 승객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화장실에 잠시 동안 가두어 두었다.

스피릿항공 측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박쥐는 도착 직후 안전하게 임시 거처로 보내졌다. 이번 소동에서 박쥐를 비롯해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면서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해당 기체에 대해 수색 및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피릿항공은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초저가 항공사로, 지난 6월에는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한 승객에게 항공사 이용 영구 금지 처분을 내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1만 년 전 마스토돈 화석이 발견된 사연

트럭에 실린 흙더미 안에서 최소한 1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토돈 화석이 발견됐다. 마스토돈은 코끼리과로 태고에 서식하다 멸종한 동물이다. 화석은 하마 터면 쓰레기로 버려졌을 뻔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베리소에 사는 왈테르 플로르시엔은 흙을 사고파는 일을 한다. 그는 최근 채석장 주변에서 나온 흙 1트럭을 샀다. 트럭이 흙을 쏟아내려놓자 플로르시엔은 쓰레기가 섞여 있는지 확인했다. 이상한 뼈를 발견한 건 이 과정에서이다.

흙에선 종종 소나 말의 뼈가 나오기도 한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이번에 발견된 화석도 무심코 쓰레기로 버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플로르시엔은 전직 정육점 운영자로 뼈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전문가'이다. 플로르시엔은 현지 일간 클라리과의 인터뷰에서 "흙에서 소나 말의 뼈가 여러 번 나왔다."면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 분명 소의 뼈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귀한 화석임을 짐작한 그는 아르헨티나 자연과학박물관에 전화를 걸었다. "흙을 샀는데 공룡화석이 나온 것 같다."며 그는 확인을 요청했지만 박물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박물관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플로르시엔은 발견한 화석을 들고 직접 박물관을 찾아갔다. 화석을 본 박물관 관계자들은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고생물학계는 발각 뒤집혔다. 화석은 멸종한 마스토돈의 화석이었던 것이다. 고생물학자들은 플로르시엔이 산 흙 속에서 복수의 마스토돈 화석을 발견했다.

흙을 채굴한 곳에서도 탐사가 시작됐다. 현지 언론은 "마스토돈 신체 모두가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고생물학자들의 설명"이라면서 "마스토돈 2마리의 화석이 묻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 마약 운반하려고 다리 수술까지

마약 운반을 위해 다리 수술도 마다하지 않았던 여성이 체포됐다.

지난 6일 콜롬비아 경찰은 코카인을 다리에 숨겨 스페인으로 나가려던 40대 여자를 체포했다. 콜롬비아 서부도시 칼리에서 비행기에 오른 여자는 보고타 국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을 하려다 걸미를 잡혔다. 콜롬비아 경찰은 "환승을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살펴보면 중 유난히 긴장돼 보이는 여자를 발견, 정밀검사를 진행한 끝에 몸에 숨긴 코카인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여자가 코카인을 숨긴 곳은 넓적다리였다. 여자는 넓적다리 바깥쪽을 절개하고 코카인을 집어넣은 후 봉합 수술을 받았다. 적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살과 근육 사이에 코카인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여자의 넓적



다리에서 나온 코카인은 780g, 시가 3만6,000달러어치였다.

붙잡힌 여자는 평범한 미용사였다. 그녀는 한 번에 큰돈을 손에 짤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운반책으로 나섰다.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코카인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코카인 대국'이다. 콜롬비아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콜롬비아 공항에서 붙잡힌 마약운반책은 160여 명에 이르지만 수술로 몸에 코카인을 넣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운반의 수법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특히 이번엔 자해에 가까운 수법으로 마약을 숨겼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